

〈토 론〉

## 전통적 주생활문화환경의 관광상품화 전략

박 정 희 교수(목포대학교 소비자아동주거학과)

디지털 통신기술과 문화산업주의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되고 있다. 오늘날 문화 체험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각광을 받고 있다. 새로운 체형경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은 관광산업이다. 불과 반세기 전에 경제활동의 가장자리에서 슬며시 등장한 이 문화상품은 이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관광업은 문화체험의 상품화라는 표현이 딱맞는 분야이다.

위는 정보화 사회를 예측한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후 21세기 앞으로의 세계를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로 정의한 제레미 러프킨의 말이다. 문화가 관광상품의 중심이 된 시점에 주생활문화환경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전략을 개발하고 계시는 발표자분께 주거학 전공자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자연, 생활, 문화,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농촌관광프로그램이 도시관광객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안식처 제공의 역할을 하고, 농촌주민에게는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농촌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200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의 자연, 생활,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는 세계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관광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발표된 내용 중 용어 사용상의 혼란에 대한 한가지의 지적과 살아있는 주생활문화의 강조, 농촌과 연계한 전통주생활문화 관광상품화 전략의 필요 등 두 가지점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생활, 문화, 환경:

문화관광은 문화적 요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형태로서 이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여기서 문화적 요소라 함은 발표자도 지적했듯이 도시, 건축, 음식, 축제, 민속, 무용, 음악 등 유·무형의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문화는 어느 사회의 생활의 방식(a way of life)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가 하면 환경은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형의 다양한 모든 것들이라 정의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문화는 사회적 환경의 요소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용어 개념상으로 생활은 문화 속에 포함이 되고 문화는 환경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자연된 주생활 문화(민속마을) 뿐 아니라 실제 생활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주생활문화의 강조:

흔히 우리사회에서 문화라는 말이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위적인', '고급취향의', 또한 그것의 사용에 있어 일부에게 '제한된' 의미로 해석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문화란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흘러와 정형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구나 생활문화란 더욱 그러하다. 주생활문화를 재연한 민속마을에 대한 지침과 함께 살고 있는 현장으로서 관광자원화 가치가 있는 곳을 발굴해내고 이를 잘 보전하면서 그곳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전략이 앞으로의 관광개발에서는 더욱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농촌과 연계한 전통 주생활 문화관광개발 전략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농촌소득증대 및 농촌의 교류 등을 기본으로 시작된 농촌관광 사업은 농어촌의 소득개발사업의 일부로서 1990년의 농어촌의 휴양지 조성사업, 1991년의 농어촌 민박사업 등과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어 왔다. 농촌관광사업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주로 농산물 직판농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초기의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점차 농촌 휴양형, 심신수련형, 자연학습형 등 기능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는 농촌관광사업은 유럽 및 일본에서 Green Tourism, Rural Tourism, Farm Tourism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는 농촌 지역에서 그 곳의 자연, 생활,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관광산업의 중요한 요소가 문화관광이고 특히 농촌의 문화는 많은 부분 우리의 전통문화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통적 문화관광의 많은 부분을 농촌 관광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고 농촌의 매력을 창조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농촌주민과 농촌자본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시설

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덧붙여, 공간적으로는 마을단위로 농촌의 전통생활모습이 종가 집이나 문중행사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가를 지키고 있는 종부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상품개발도 고려해 볼 만하다.